

“활력지원금에 시장 북적” 고창 민심 웃었다

국가자격 아이돌봄사 전북 첫 양성 성료

활력지원금, 시장 가보니...
현장에서 듣는다

민선9기 첫 공약, 시장서 체감
활력지원금 지급 뒤 방문객 2배
고창사랑상품권 할인...소비 촉진
상인들 “군 지원 믿고 있다”

“전에는 목 터지라고 손님을 불렀어
야 했는데 좀 수월한 거 같아요”
추석을 열흘가량 앞두고 찾은 지난 13
일, 고창읍 고창전통시장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제철을 맞은 전어와 꽃게가
시장 한쪽에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
고, 고소한 감정과 한과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상인들은 “선물하시게요?”,
“활력카드로 하면 더 싸다” 등 말을 걸
며 손님들을 맞았다.

박모씨(40대·여)는 “활력지원금으로
가족들 먹을 꽃게를 보러 왔다. 물가가
높아서 구매량이 조금 줄었지만, 군에
서 많은 지원을 받아 더 많이 살 것 같
다”고 말했다. 엄마를 따라 나온 남자아
이(7)는 “시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놀
랐다. 새 운동화를 사주셔서 기분이 좋
다”고 웃음지었다.

시장 방문객들에게 무료 생수를 나
눠주던 성은아 고창전통시장상인회장은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시장 상인들은 군을 믿고 있다”며 “이
달 활력지원금 지급 이후 시장을 찾은
인원이 다른 때에 비해 2배이상 늘었
다. 이번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9월
16~20일)까지 시작되면 시장 매출이 평
균 6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이번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은 민선 9
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첫 번째 공약실
천사항이다.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각종 농작물
피해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면서 고창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군
비를 투입한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 공
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격적인 지급이 이



“살맛나네” 활기 찾은 고창전통시장

지난 13일 고창전통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고창군>

뤄졌다.

특히 이번 활력지원금은 카드단말기
가 설치된 고창군 어디서나 사용이 가
능하면서 면단위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실컷 사용했다는 만족감 높은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을 농
어촌기본소득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로 모든 군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고창사랑상품권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9월 한달간 전국 최
고 수준인 20%특별할인을 시행중이다.
농민수당과 어민수당도 추석을 앞두고
지급을 시작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가을 군민들
게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소

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가 기
대된다”며 “특히, 군에서 지급하는 군
민활력지원금으로 군민 모두가 더욱
넉넉한 가을을 나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흑염소협회 한마음대회...농가·관계자 한자리에

도내 흑염소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염소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남원시 사랑
의광장에서 도내 염소농가와 관계자 등
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전북흑염소협
회 한마음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전북흑염소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염소농가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현장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염소산
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염소산업 관련 홍보관이

운영됐으며 염소고기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농가와 협회 회원들이 함께
하는 화합행사를 통해 소통과 유대감을
다졌다.

특히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소비시장
변화 등 산업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나
누고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한마음대회가



<사진=남원시>

염소농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화
합하며 염소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염소산업

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
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장정철 기자

“신선함에 마음을 담다, 더 커진 설렘으로 찾아옵니다”

조합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남원의 새로운 중심,
남원축협 조산동 통합시설 금융점포,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오픈일

2026년 9월 14일(월)

남원축협 조산동 통합시설

트러스트자산운용, 혁신도시 전주사무소 개소

국민연금 현장 소통 강화
지역 인재 발굴·실무교육 추진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협력
민간 금융기관 집결 가속

전북도는 15일 트러스트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윤동욱 전주 부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황성택·김영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이번 전주 거점 마련을 계기로 독자적인 주식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의 현장 밀착형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실무 대응력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다. 전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재 발굴에 나서는 한편, 본사 순환 근무 등을 통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전북 금융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우선협상대상자인 오라이언자산운용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기능적 실무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갈 주체로 기대를 모은다.

도는 민간 자산운용사의 전주 정착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금융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사진=전북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에 대해 "23년 이상 국민연금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해 온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전북 안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주사무소 개소와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금융타운 조성사업 협력을 통해 전북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국립의전원 축으로 의료중심 혁신도시 건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이전 촉구
남원 의료중심 혁신도시 제안
“도농복합시 읍·면까지 확대해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난 14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오는 2029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립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초과정은 지방에 두고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내걸었고 지역내에 설립기획단도 대학과 병원의 1대1 매칭과 근접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

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설립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이나 소재지를 빨리 확정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이고, 지방 환자는 1인당 116만 원을 더 부담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로 인한 사회적 순비용을 최대 4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근무자와 가족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중해 의료중심도시를 만들고, 서울로 향하는 환자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료중심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주·광주·진주·순천이 1시간,



<사진=박희승의원실>

충청과 부울경을 포함한 영남·호남 대부분이 2시간 안에 들어오는 남원을 두 기관을 축으로 한 의료중심 혁신도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국토 대전환을 논의할 때도 학교와 함께 의료시설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그런 도시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도 요구했다.

순창은 913명, 장수는 758명의 인구가 늘고 순창에서만 51개 점포가 신규 창업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마을 슈퍼가 사람을 모으고 이어주는 농촌의 사람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학자금 대출 부담 30~40대로 옮겨가”

장기연체 5만명·2,723억원
40대 이상 연체액 49.3%



한병도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 무게중심이 30~40대로 옮겨갔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이 이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50,101명, 연체채권 잔액은 2,723억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4,061명(48.0%)으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18,993명(37.9%) △20대 7,047명(14.1%)이었다. 30대 이상으로 보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의 58.8%에 달했다. 3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31,196명이다. 장기연체채권의 연간 발생액은 2022년 347억 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68억 원으로 63.7% 늘었다. 반면 회수액은 같은 기간 32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9.0% 줄었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발생액은 2,247억 원, 누적 회수액은 1,376억 원으로 871억 원이 순증했다.

회수 불능 채권을 정리하는 상각액은 2022년 163억 원에서 2025년 113억 원으로 30.7% 줄었고, 대손충당금은 2023년 111억 원에서 2025년 409억 원으로 늘었다.

재단은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교육부·캠코와 협의해 왔으며, 매각 예정 규모는 약 3,800명 내외다.

한 의원은 “학자금 빚은 청년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도약기금 매각 3,800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5만 명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김민석 “오늘부터 총선 준비 함께해야”

“지지율 하강세 계속…바닥 임박”
사·도당위원장 선대위 역할 주문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번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막노선으로 생각하고 반등시켜야 한다. 오늘부터 총선 준비를 함께 시작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임기 1년차 허니문이 끝나는 것과 전반적인 정책 재조정 시기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그 전만 못하게 떨어졌고, 현재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6.3지방선거 때에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했다”며 “이것을 반등시켜하는 책임은 당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은 이제 거의 바닥을 치는 상태로 갔다고 분석하는 게 옳다”며 “지금은 지지율을 볼 때가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당을 우리가 책임지고 혁신하고 우리 지지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당청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을 끌어왔던 대통령에게 또 의지해서 대통령만 지지율 반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할 수 없다”며 “당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노력해야 한다. 그 중심에서 사·도당위원장이 계신다”고 말했다.

또한 “매일 여론조사가 나오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앙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당도 임박해서 (총선)선대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선대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든 사·도당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로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최고사령부가 돼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전국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북도가 추석 연휴 도민과 귀성객의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와 14개 시·군은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수 환자 발생 등 특이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곳과 응급의료시설 1곳은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실 환자 집중을 줄이고 경증환자의 원활한 진료

를 위해 하루 평균 병·의원 152곳과 약국 127곳도 문을 연다.

소아환자를 위한 진료체계도 유지한다.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진료를 이어가 중증·응급 소아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경증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과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7곳도 기관별 운영시간에 따라 진료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진

료시간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의료기관별 진료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운영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강 관리 루틴

적절한 운동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밤 10시~ 새벽 2시 사이 숙면을 통해 면역력 강화

체온 유지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기 (스카프, 가디건 활용)



실내환기



하루 2~3회 창문 열어 공기 순환

감나무골 조합장 해임총회 D-4... ‘진실공방’ 요동

조합 “지연 땀 준공 및 대출입주 차질 우려” 비대위 “우려 과장... 사업비부터 검증해야”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준공을 두 달여 앞두고 조합장 해임총회를 둘러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진실공방으로 요동치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지연될 경우 준공과 입주, 대출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대위는 입주지연 우려가 과장됐으며 증액된 사업비의 적정성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13일 준공, 같은 달

20일 입주를 목표로 공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이주비·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대출 실행 등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분양자들의 입주 차질에 따른 분쟁이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아파트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으며 조합이 제기하는 대규모 입주지연이나 대출 차질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리처분 변경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의혹과 함께 2023

년 서울 소재 업체와 약 27억원에 계약한 기반시설 공사가 3년 만에 100억원을 넘는 규모로 증가한 경위에 대해 조합 측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공사비와 세금, 설계 및 사업 변경사항 등이 반영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위 측에서 그동안 제기한 고소·고발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나무골 조합은 지난 8월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열었으나 전체 조합원 550명 가운데 278명이 찬성하고 208명이 반대에 특별한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이후 조합이 재총회를 추진하자 비대위는 오는 19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사비와 세금, 각종 용역비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조합장 해임안을 통과시켜 조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학 조합장은 “비대위가 앞서 두 차례 해임을 추진했지만 모두 부결됐고 그동안 제기한 고소·고발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각됐다”며 “조합원들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공과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주 차질 가능성’과 ‘사업비 적정성’을 둘러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19일 조합장 해임총회가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준호 기자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풍성한 한가위 나눔활동

복지시설 방문해 후원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전 복지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오는 22일까지 김성주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후원금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복지관 이용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공단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류지영 감사와 황승현 기획이사, 정태규 연금이사, 김대순 복지이사 등이 덕진노인복지관과 선덕보육원 등 전북지역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차례로 찾은 예정이다.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모두 5개 복지시설에 총 7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다. 공단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

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후원금 전달과 함께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전단 직원들도 전주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알린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의 취지와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등을 복지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제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지역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나눔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시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조달계약 1조5277억 집행

지역기업 공공시장 진입 확대 및 미래산업 분야 판로 지원 강화

전북지역 조달계약사업 집행실적이 올해 들어 1조5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북지방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미래산업 분야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종화)은 15일 지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조달계약사업 집행실적과 ‘공공조달 길잡이’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하반기 조달자율화 시범사업 점검 및 지역기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전북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조달계약사업 집행실적은 1조5천277억원으로 연간 계획 2조2천669억원의 6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천913억원의 90.3% 수준이다.

분야로는 내자구매가 1조65억원으로 연간 계획 1조5천946억원의 63.1%를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천698억원과 비교하면 86.0% 수준이다. 시설공사는 5천212억원으로 연간 계획 723억원의 77.5%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15억원과 비교해 99.9%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조달청은 전담직원을 배치해 올해 52건의 방문·유선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

으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6건, 벤처나라 등록 3건 등 모두 18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바이(BUY)전주 우수상품 지정업체, 여성경제인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조달제도와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군산·익산 등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들 중심으로 신규 조달기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전북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조달자율화 시범사업의 운영상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자율성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AI·로봇·바이오·기후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유망기업과 제품을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연대경제기업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선구매 제도 등을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분기별 합동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민간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김종화 청장은 “미래산업 혁신기업과 지역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달행정을 통해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우즈베키스탄과 농업협력 확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계기 농업부와 MOU 체결

농촌진흥청이 우즈베키스탄과 이어온 농업기술 협력을 전문인력 양성과 지식 공유, 전문가 교류까지 확대하며 중앙아시아 농업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진청이 그동안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축적한 현지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토대로 기술 지원을 넘어 전문인력 육성과 기관 간 장기 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우수 농업기술과 지속 가능한 관리기법을 활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 농업기술 지도·자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농업 전문가 양성, 양국 농업기관과 전문가 교류 등

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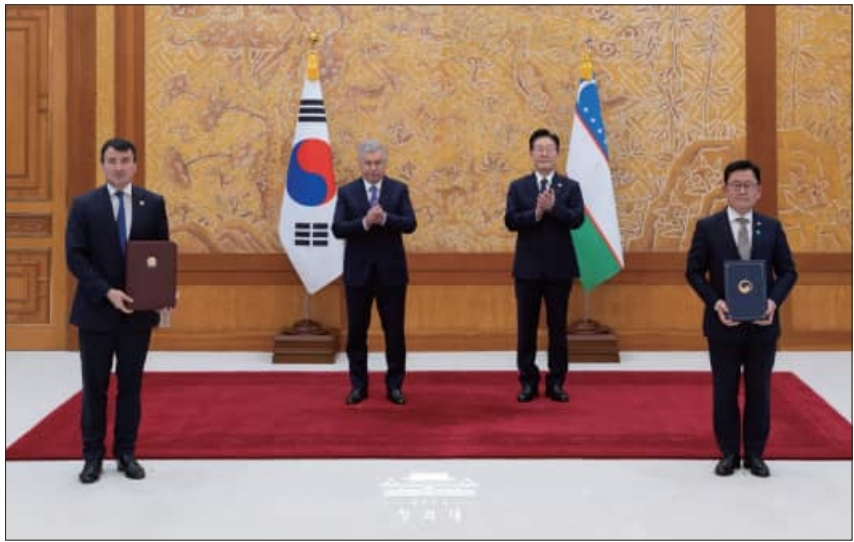
특히 농진청은 우즈베키스탄의 농업환경과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자와 농촌지도 전문가, 농업인 등의 상호 파견·초청을 통해 현장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의 농업기술 협력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AFACI에 가입한 이후 농진청과 국가 토양 특성 정보 공유·분석·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추·토마토 우수 계통을 선발하는 등 현지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해 왔다.

농진청은 또 2025년까지 농촌지도와 미국 생산, 축산, 원예, 농업개발 분야의 우즈베키스탄 농업 관계자 116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KOPIA를 통한 현장 협력도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벼와 축산, 채소, 농촌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맞춤형 기술을 개발·실증·보급했으며, 이 같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벼 우량종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농촌진흥청>

증식센터’가 설립되는 등 현지 농업정책으로까지 확산됐다.

농진청은 이번 MOU를 계기로 기존 농업기술 이전 중심의 협력을 인적 역량 강화와 지식 공유, 연구개발 협력으로 넓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그동안 축적

해 온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교육 경험을 적극 공유해 우즈베키스탄 농업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양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중기청, 위기 소상공인 ‘경영회복’ 돕는다

자금난부터 폐업재기까지 소상공인 ‘월스트립 상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과 채무조정, 경영진단, 폐업·재기지원 등을 한자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전주 남부

시장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위기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매출 감소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금·채무·경영 문제는 물론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까지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경영진단을 비롯해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채무조정, 서민금융, 폐업 및 재기지원, 취업·재창업, 창업·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해결방안을 1대1 맞춤형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과 보증, 채무조정, 경영컨설팅, 폐업·재기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하면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회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현황과 매출 흐름 등을 분석한 ‘경영진단

리포트’도 무료로 제공한다.

전북지역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자금과 채무, 매출, 폐업과 재기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상담회가 한 번의 방문으로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과 해결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금융사고 예방 강화

명절 전후 안전관리 철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는 명절 전후 금융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일 익산 시지부(지부장 진현욱)를 방문해 임시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금 시제 및 중요용지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금융 거래가 급증하는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임시점포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장길환 본부장은 개점 전 아침 일찍 불시 방문해 명절 전후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보유 현금 시재액과 수표 등 중요용지의 관리 실태 및 실물 일치 여부를 철저히 전수 검사했다.

이어 철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기존 영업점의 환경개선 공사 현장을 방문

해 화재 예방 등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길환 본부장은 “명절 전후 자금 거래가 많은 취약시기인 만큼 임시점포에서의 철저한 시제·중요용지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관련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임시점포 이용에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365코너와 영업점 공사는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군산시,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

국내·외 최대 400만 원까지

군산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제품 홍보와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실질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이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외 박람회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참가 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국내 박람회의 경우 부스 임차료와 현지 숙박비의 80%를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국외 박람회는 부스 임차료·항공료·운송료·통역료의 50%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를 실시하고 수출 준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사업비)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군산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내·외 박람회는 지역기업이 제품 경쟁력을 알리고 새로운 거래처와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17~18일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수산물 취급 업소 30여 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소비자들과 판매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관내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살핀다.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지도한다. 고의적인 거짓 표시나 상습적인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정읍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판매자들도 원산지 표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책책북북 페스티벌’ 19일 개최… 체험·공연 풍성

군산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강도서관 및 디오전시터 철길공원 일원(조촌동)에서 ‘제4회 책책북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과 문화가 만나는 초록빛 독서공원’이라는 주제로, 디오전시터 철길공원 야외공간과 도서관을 연계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과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금강도서관 3층 금강누리실에서 초등학교 3~5학년 참가자들이 선정 도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도전! 어린이 독서 골든벨’이 열려 지식과 성취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도서관 옆 철길공원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야외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철길 옆 야외도서관, 어른도 읽는 그림책 북큐레이션, 책갈피·투명 북백 만들기 등 독서문화 체험부스와 책북 인생네트 사진관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배움의 즐거움 한자리에… 익산 평생학습축제 열린다

익산의 다양한 평생학습 성과를 한자리에 서 만나고 직접 체험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2026 익산시 교육발전특구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곳곳에서 이뤄진 학습 활동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장에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와 학습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50여 개의 홍보·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시민들은 각 기관과 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2026 다봄 유소년 드론 스포츠 대회”도 열린다. 유소년들이 그동안 익힌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문해교육, 우리동네 놀배움터 등 지역 기반 평생학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 이어 내달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익산시청 다목적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해 배움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대, 내년 수시 경쟁률 ‘5.46대 1’

총 모집 인원 1,888명에 10,307명 지원… 전년대비 40.5% 증가 학생 복지 강화 요인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15일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총 모집인원 1,888명에 10,307명이 지원해 5.4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시 경쟁률 4.09대 1에 대비해 전제적인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같은 경쟁률 상승은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실현과 무료 통학버스, 최신식 기숙사 등 학생 복지를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전형별 정원내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전형 5.66대 1(모집 1,314명, 지원 7,441명), 학생부종합전형 6.56대 1(모집 374명, 지원 2,453명), 실기/실적전형 3.04대 1(모집 52명, 지원 158명)이다.



세부 전형별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전형(일반전형) 무역학과 9.44대 1, 사회복지학과 9.40대 1, 간호학과 9.25대 1, 학생부종합전형(일반 학생) 간호학과 14.85대 1, 일어일문학과 14.00대 1, 법경찰학과 12.00대 1 등이다.

국립군산대학교 실기과사(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는 내달 29일 실시한다. 최초 합격자는 11월 24일 오후 6시

<사진=군산대학교>

이전에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7학년도 정시 모집은 2027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원서 접수 후, 2027년 2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합열농공단지 ‘일반단지’ 전환

‘전문단지’ 지정 해제 관리기본계획 변경

특정 산업 족쇄에 묶여 수년째 분양 절벽에 갇혀 있던 익산 합열농공단지가 마침내 규제의 틀을 깨고 첨단 미래 산업을 품을 채비를 마쳤다.

익산시는 합열농공단지의 ‘전문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단지로 성격을 바꾸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종 고시됐다고 15일 밝혔다.

합열농공단지는 2014년 LED 조명 산업 집적화를 내걸고 ‘농공전문단지’로 지정돼 2019년 준공했다.

하지만 법률상 전체의 50% 이상을 전자·전기 등 동일·유사·연관 업종으로 채워야 하는 엄격한 입주 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준공 직후 LED 산업 성장세가 꺾이고 초기 입주 의향 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단지는 고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 관련 입주 기업은 단 2곳에 그치며, 산업시설 용지 분양률은 54%에 머물러 절반 가까이 비워져 있었다. 다른 우량 업체들이 문을 두드려도 규제 탓에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익산시는 농촌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해 주민 일자리를 늘리고 농외소득을 높인다는 농공단지 본래의 설립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단지’ 꼬리표를 떼어내고, 다양한 제조업과 신산업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는 ‘일반농공단지’로 전환을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합열농공단지는 급

변하는 산업 수요를 능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유망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기업까지 폭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는 문턱이 낮아진 합열농공단지지의 미분양 용지를 조기에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된 북부권 경제를 건인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용범 익산시 경제산업과장은 “이번 고시는 50% 의무 비율이라는 단단한 빗장을 풀어 농촌 산단 본래의 활력을 되찾는 중대환 전환점”이라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북부권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중앙부처 찾아 현안 지원 요청

김영민 부시장, 국토교통 분야 등 필요성 설명

군산시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에 나섰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1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국토교통 및 문화·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 부시장은 먼저 국토교통예산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새만금 물류 인프라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새만금의 산업·물류

기반 확충과 광역 교통망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을 만나 군산의 차별화된 근대문화 자원과 기존 문화관광 기반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외 차원의 관심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해 망주봉 일원의 역사·경관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

조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새만금과 연계한 교통·물류 기반 확충은 군산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고군산군도의 역사·경관 자원 역시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자산”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국비가 반영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후속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문화관광 분야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바이오산업 거점 밀그림

총사업비 365억 원 투입 ‘지식산업센터’ 설계 공모

정읍시가 바이오기업의 입주 공간과 생산시설, 생활 기반을 한곳에서 지원할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365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하고 2030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바이오산업의 핵심 시설로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는 국비 160억 원과 시비 205

억 원 등 총 365억 원을 투입한다. 연면적 약 1만 281㎡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기업 임대 공간 약 60실과 장비 지원실, 기숙사 약 20실을 마련한다. 구내식당과 카페, 편의점, 연구회실(세미나실) 등도 갖춘 바이오기업의 입주와 생산,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참가 등록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시는 11월 중 공모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건축 관련 교수와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가 결정한다. 시는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센터 건축 설계에 착수한 뒤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의 입주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의료원,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

뇌졸중 진료체계 강화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뇌졸중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뇌졸중집중치료실 4병상을 신설하고,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뇌졸중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 초기 집중관찰이 중요한 질환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군산의료원은 뇌졸중집중치료실에 중앙집중관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전도기, 제세동기 등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춰 집중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를 관리한다.

특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경학적 변화 등에 신

속하게 대응하고,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4개 진료과 의료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의료원은 이번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을 통해 뇌졸중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과 지역 내 뇌졸중 진료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준필 원장은 “뇌졸중은 신속한 치료와 함께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뇌졸중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유행성 감기 무료 접종 시작

21일부터 순차적 실시

정읍시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접종 대상과 연령별로 시작일이 달라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 대상과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나눴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가운데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 등 2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는 오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28일부터다.

어르신은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75세 이상은 내달 12일, 70~74세는 내달 15일, 65~69세는 내달 19일부터 접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유행성 감기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

을 것을 권장한다.

정읍시 자체 무료 접종 대상인 60~64세 시민과 정읍시에 등록된 장애인,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본인은 내달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읍시보건소는 내달 26일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유료 접종만 하며 무료 접종은 하지 않는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무료·유료 접종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유행성 감기 예방접종은 겨울철 감염과 중증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본인의 접종 시작일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

‘개구리주차장’ 건의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충영 의장은 지난 14일 평화사거리에서 익산역 방향 구간을 방문해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이 ‘개구리주차장’ 설치물 건의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날 김 의장은 관계 부서와 함께 도로 여건과 주변 상권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본 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함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과 보행자 안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김충영 의장은 “시민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건의된 개구리주차장 설치 민원은 인근 상권의 활력 제고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 의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상황 점검

군산시가 15일 부시장 주재로 ‘군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부시장과 국 주무과장, 관련 부서 담당자 등 실무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반부패·청렴 시책의 세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반부패·청렴 시책 세부 과제 추진현황 △재·세정, 인사 등 중점 부패 취약분야 이행사항 △취약분야별 개선과제 및 보안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른 부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 시책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전 부서의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과제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각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부패 취약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 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추석 앞두고 우수상품 판로 넓혀 2(題)

완주군 로컬푸드 서울광장 ‘서로장터’ 참여	순창군, 중증장애인생산물 전시·판매 행사
완주군은 추석을 앞두고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6년 추석맞이 서로장터’에 참여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농어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로 이어졌다. 군은 직거래 장터 부스에서 생강청과 감부각, 참·들기름, 한우 육포, 편강, 꽃감, 무화과, 누룽지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완주	순창군은 지난 14일 군청 잔디광장 앞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증장애인생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 기반을

남원시 3회 추경 1조2,320억 확정…1,081억 증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141억 편성 스마트농업·청년농촌 집중 투자

남원시는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를 1조 2,32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39억원보다 1,081억원(9.6%)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1,598억원으로 1,044억원(9.9%) 증액, 특별회계는 722억원으로 36억원(5.3%)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교부세와 순세게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41억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3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26억원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13억원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0억원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9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7억원을 편성하고,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 확포장 5억원 △용배수로 정비 5억원 △저수지 시설 보강 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남원현대אות칠목 공예관 건립 71억원 △합파우 유원지 디지털테마파크 조성 20억원 △제97회 춘향제 사전준비 15억원 △남원도자전 시관 건립 10억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보수 및 리모델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난·재해 예방 생활 인프라 개선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3억원 △주촌 재해위험개신지구 정비사업 12억원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억원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 4억원 △남원시 생활권 보행안전 5억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배촌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청년·복지·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10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7억원 △남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 10억원 △교육발달특구 시범지역 운영 10억원을 편성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피지컬AI 주력산업 연계 육성 본격화

사업추진단 회의·착수보고회 상용차·수소 적용분야 발굴

완주군이 상용차와 수소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산업 육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완주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산업 육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학교, 우석대학

교, 캠퍼스융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완주연구원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이서면에 조성 예정인 연구클러스터에서 창출될 기술·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과업은 △상용차·수소 등 완주군 주력산업의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적용 분야 발굴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 공간 확보 방안 마련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실물 인

공지능(피지컬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역의 주요 과업과 추진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완주군 주력산업과 피지컬AI 기술의 연계 가능성, 기업 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용역에 적극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를 향후 산업 육성 정책과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보조금 담당자와 ‘청렴토크’

33명 참석 현장 경험·애로 공유 군수에 현장 건의사항 전달

순창군은 지난 14일 어울림센터에서 부패방지약분야의 솔직한 고충을 나누고 수평적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군수님과 함께하는 청렴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3명이 참석해 청렴과 공정성의 가치를 다지고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렴토크는 군이 추진하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됐다. 당시 군수와 직접별 공직자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져 예정 시간을 넘겨 진행될 만큼 호응 속에 마무리된 바 있으며, 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보조금 담당현장 실무자들에게 소통의 폭을 넓혔다.



<사진=순창군>

이날 행사는 군수를 시작으로 모든 부서장이 참여한 ‘청렴공필데이’ 영상과 ‘직장 내 최악의 동료’ 영상을 시청한 뒤, 참석자들이 근무 중 겪었던 실제 경험담을 나눴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현장 경험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처법과 따뜻한 격려를 전달했다. 특히 보조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혹과 딜레마 상

황을 유쾌하게 풀어낸 ‘보조금 청렴 벨런스 게임’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공감을 얻었다. 행사 마지막 순서인 ‘군수에게 바란 다’에서는 보조금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평소 전하고 싶었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추석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병·의원·약국 30곳 지정
남원의료원 24시간 응급실

남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시민과 귀성객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응급진료체계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와 경증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문 여는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약국 지정·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남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기관 및 병·의원, 약국 30개소를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남원의료원은(620-1114)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남원병원(631-0119)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고, 보건소는 24일과 25일 진료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E-Gen), 버스정류장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서울에너지공사와 도농 상생 ‘맞손’ 직거래장터 성공 운영 협약 올해 장터 매출 8천만원 돌파

완주군과 서울에너지공사가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상생 발전과 이이즈(ESG, 환경·사회·투명 경영)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서울에너지공사 안에서 열린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발판 삼아 추진했으며, 두 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지며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특별시와 손잡고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부지에 개

설했다.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첫해에는 2,8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어 2026년에는 5월 29일 문을 연 뒤 8월 말까지 8,6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년간 누적 방문객 수도 7,200여 명을 넘어섰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도농 상생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광치복합문화센터, 산단 구조고도화 ‘우수’

공공투자분야산단공 이사장상
시설 구성·근로 환경 개선 호평

남원시(시장 양종모)는 ‘2026년 제2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에서 남원 광치복합문화센터가 공공투자분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는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안에서 식사하고, 쉬고, 운동하며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조성한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이다. 남원시는 2021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광치산업1길 9 일원에 대지면적 3,556㎡, 연면적 1,894.34㎡ 규모의 센터를 건

남원 농촌 3개마을 생활기반 확충 ‘속도’

동산부동 외지마을…18억 투입

남원시가 농촌 마을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주생면 동산마을·부동마을과 아영면 외지마을 등 3개 마을 대상 마을별 공사 작공을 시작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기반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농촌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여건과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순창군, 건물번호판 마을명 병기
주민 제안으로 편의 높여**

순창군이 주민과 방문객의 위치 찾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건물번호판에 마을명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번 사업은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1차 정기회의에서 제안된 ‘건물번호판 마을명 병기’ 정책 건의를 적극 반영해 추진된다. 군은 건물번호판에 마을명을 직접 새겨 넣을 경우 도로명주소 본래의 안내 기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건물번호판 하단 여백에 가로형 마을명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익숙한 자연마을 이름을 함께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순창군은 이날 중·음·면별 스티커 소요량을 조사해 제작·배부하고, 10월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연마을명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위치 확인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마을의 역사와 특색이 담긴 고유 명칭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공무원 1,000명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남원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 형태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장보기 행사는 이달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 남원시 공무원 1,0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식료품 등을 구매한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미려하게나마 상인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각적인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택배 무료 서비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아케이드 공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소방서, 봉동생강골시장
장보기 및 화재예방 캠페인**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봉동생강골시장에서 풍성한 추석·안전한 명절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봉동남·여 의용소방대원 등 총 40여 명이 동참해 뜻깊은 온정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제수용품과 명절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장터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 캠페인도 병행했다. 소방서는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제거하고, 상인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인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편안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읍 청소년들, 직접 만든 빵 어르신께 따뜻한 나눔

진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진안사통팔달센터가 연계하여 추진한 베이킹 교육을 통해 진안읍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빵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청소년 베이킹 교육 참여자들은 지난 11일 오전리 평촌마을을 찾아 직접 만든 빵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베이킹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익힌 기술과 정성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직접 빵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뒤 평촌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으며, 빵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진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진안사통팔달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주민들이 배운 것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며 '배움이 나눔으로, 나눔이 공동체로 이어지는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군 아파트공동체협의회 취약계층에 반찬 전달

완주군 아파트공동체협의회가 최근 용진읍 도계마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2026년 아파트 공동체 반찬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아파트공동체 사회공헌 네트워크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아파트공동체 대표 1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아파트 공동체 사회공헌 네트워크형 공모사업'은 개별 아파트공동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현안사업을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돼지불고기과 배추김치, 깍두기 등으로 구성된 정갈한 반찬 세트를 마련했다. 총 200세트의 완성된 반찬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각 가정에 전달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청 이종대 팀장, 상하수도기술사 합격

'제139회 기술사' 최종 합격 전문성으로 군정 견인

전북 순창군청 건설과 소속 이종대 팀장(사진)이 국가기술자격 최고 영예인 상하수도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며, 지역 공직사회 전문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순창군은 건설과 소속 이종대 팀장이 지난달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제139회 기술사'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기술사는 수질공학, 하수처리, 상수도 관망관리, 정수장 운영 등 상하수도 전반에 걸친 고도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의 자격증이다. 방대한 학습량과 극히 낮은 합격률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는 '엔지니어의 꽃'으로 불린다. 이 팀장은 건설과 실무 및 현장 민원 업무를 병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퇴근 후 야간 시간과 주말을

온전히 학업에 집중하는 주경야독을 실천한 끝에 이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군은 상하수도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공직자가 기술사 자격까지 취득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 검토와 감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국비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도 전문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대 팀장은 "군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긴 수험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에 기술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더해 순창군의 상하수도 인프라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 계남면 동향 모임 장안회 고향에 지역상품권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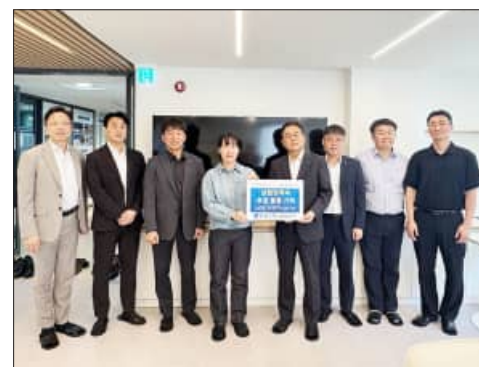
장수군은 계남면 출신 재전 동향인 모임 장안회(회장 서하진)가 계남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사용에 달라며 150만 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도 계남면을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이어온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됐다.

장안회는 1978년 창립된 계남면 출신 재전 동향인 모임으로,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하진 회장은 "비록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늘 고향인 계남면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이웃들에게 장안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북은행, 남원장학숙 입학생 위한 TV 기탁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양충모)은 전북은행이 남원장학숙 입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편의를 위해 TV를 기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남원 전북은행 지점이 남원장학숙의 지역 인재 양성 취지에 공감해 본사에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학습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장학숙 내에 북카페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이번에 기탁받은 TV는 북카페 공간에 비치되어 학생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홍용 부행장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학생들 꿈과 미래 응원 교육복지등 사회공헌 지속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인재육성에 힘을 보탬했다고 밝혔다.

부안농협은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영농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및 사회공헌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든든한 동반자여야 한다"며 "오늘의 작은 나눔이 학생들에게는 내일을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훗날 그들이 다시 지역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쌀 4백 포대 지정 기부

1360만원 상당 쌀 기탁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가 추석을 앞두고 15일 무주읍 나르미사업단에 쌀 4백 포대(1포대 10kg, 1천360만 원 상당)를 기부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양수발전소는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2백 포대,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무주읍·적상면 15곳)에 1백 포대를 지정 기부했다

며,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전달받은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2백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광래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장은 "우리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쌀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유)군장공조, 군산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군산시는 15일 (유)군장공조(대표 김희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암동 관내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희란 (유)군장공조 대표(현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

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지역 이웃을 위해 변함없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유)군장공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구암동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건조한 가을, 불씨 하나도 조심하세요

가을철 산불 예방

1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2

취사 금지구역에서 취사 금지

3

산에서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4

산불발견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一事一言〉



SKY 3개교 기부금이 지방 118개 대학을 삼켰다. 메마른 전북 고등교육의 재정 생태계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재정 지형도가 기괴할 정도로 기울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율)이 분석해 공개한 최근 5년간 대학 기부금 수령 현황은 지방 대학들이 처한 가혹한 재정적 고립의 깊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전국 191개 대학이 수령한 총 3조 2,396억 원의 기부금 중 수도권 73개 대학이 쓸어 담은 액수는 전체의 70.1%인 2조 2,707억 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 118개 대학에 돌아간 몫은 고작 29.9%(9,690억 원)에 불과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참담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이 끌어모은 기부금(1조 519억 원)이 비수도권 118개 대학 전체 기부금을 합친 것보다 800억 원 이상 많았다. 수도권을 넘어 특정 명문대가 민간 교육 자본을 씹어먹는 현실 앞에서, '지방대 자생력 확보'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은 허탈한 구호로 전락한다.

이 거대한 격차의 수용들이 속에서 전북 지역 대학들이 서 있는 위치는 더욱 위태롭다. 비수도권 118개 대학이 나누어 갖는 29.9%의 파이 안에서조차 전북의 지분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전북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연간 50억 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도내 사립대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수령한 원광대학교가 연간 26억 원대를 기록하며 겨우 체면을 차려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대학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4년제 사립 및 국공립 대학들은 연간 1억 원에서 5억 원 안팎의 기부금에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다. 비수도권 대학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전북의 대학 대다수는 재정 자생력이 최하위 수준에 맴도는 '재정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과 재단 기부금의 전북 소외의 현상이다.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기업 기부금(1조 41억 원)의 68%가 서울 소재 사립대로 몰렸다. 첨단 산업 인프라와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북의 사립대들은 산학협력 연구 자금이나 민간 자본 유치 채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이 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연구 기부금을 바탕으로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전북의 대학들은 기본적인 연구·실습 장비 교체조차 주저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

대학 기부금은 국가 보조금이나 학생 등록금과 달리, 대학이 스스로의 비전과 특성화 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핵심 '독자 재원'이다. 학령인구 급감과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여파로 대학의 기본 재정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기부금의 격차는 곧 대학 경쟁력의 격차로 직결된다. 기부금이 없는 지방대는 교원 확보, 장학금 지급, 연구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탈출하는 '인재 유출의 악순환'을 가속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지역 대학의 재정 인프라가 부실하

다면 산업과 교육의 선순환 구조는 작동할 수 없다. 민간 기부 자본이 마른 전북의 대학 생태계는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감 자료를 통해 "지역별 격차가 소득과 일자리를 넘어 대학 기부금에서조차 나타나는 것은 지방 대학의 자체 재정 확보 역량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진단이 나왔다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할 때다.

우선 비수도권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과격적인 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을 부여하는 '지역대학 기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수도권과 똑같은 세제 혜택 구조로는 기업의 기부 수표가 결코 전북으로 향하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기업, 대학이 결합하는 '전북형 지산학 연계 기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북에 기부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이나 지역 R&D 프로젝트 참여 가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자금이 도내 대학으로 흘러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대학의 재정 격차는 단순히 캠퍼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이 걸린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 대학들이 수조 원의 기부금을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는 동안, 지방의 대학들이 재정 고갈로 고사하는 구조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결코 불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전북도정은 지방 대학의 재정 생태계를 살려낼 특단의 제도적 결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독자투고

스마트폰 영상통화 한 번이 평생의 악점이 된다



최근 몸캠피싱 범죄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랜덤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접근한 뒤 화상

채팅으로 유인해 신체 노출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범인들은 위장 계정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쌓은 뒤,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 연락처를 탈취하

는 악성 앱을 함께 설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되는 순간을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다. 한 번 돈을 보내도 협박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몸캠피싱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화상채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셋째, 신체 노출이 포함된 영상통화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요구

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돈을 보내도 유포 협박은 계속되므로 금전 지급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화 내용과 협박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112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상 삭제 및 확산 방지 조치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결코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 피해가 커지는 만큼, 초기에 용기를 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사 박재원

사설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의 경 고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쓴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다. 여권 내부에서 나온 경고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더욱이 충도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윤 의원이 지적한 핵심 역시 신뢰다. 공소취소 논란이나 연임 개헌 등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문제를 어정쩡하게 끌고 갈수록 국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마저 국민적 동력을 얻기 어렵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정리할 것은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

정운영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특히 대통령과 여권이 경계해야 할 것은 민심과의 힘겨루기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정책과 판단에 국민이 백지위임을 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옳은 정책도 추진력을 잃는다. 역대 정부가 임기 중반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민심의 경고를 제때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금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끝없는 정쟁이 아니다. 치솟는 생활비와 주거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강조했던 실용과 민생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보다 비판하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여권 내부의 총연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민심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와 변명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다.

오늘의시

9월의 시 / 문병란

9월이 오면
해변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된다
나무들은 모두
무성한 여름을 벗고
제자리에 돌아와
호을로 선다
누군가 먼길 떠나는 준비를 하는
저녁, 가로수들은 일렬로 서서
기도를 마친 여인처럼
고개를 떨군다

울타리에 매달려
전별을 고하던 나팔꽃도
때론 손수건을 흔들고
플라타너스 넓은 잎들은
무성했던 여름 허영의 옷을 벗는다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
만 항구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눈물에 젖는다.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 등이 추천돼 등단했다. 1990년 민족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남문학상(1979), 요산문학상(1985), 한림문학상(2001)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병란시집'과 '죽순밭에서' 등이 있다. 2015년 타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엽니다.

전북타임스신문

JEONBUK TIMES

구독신청 063-282-9601

이메일 www.jeonbuktimes.co.kr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론지

군산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군산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2만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군산시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장보기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군산지역 전통시장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시장부터 청년 상인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수산물 특화시장, 오일장 등 각 시장마다 차별화된 특색을 갖추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까지 마련돼 명절 장보기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 전통과 청년의 감각이 공존하는 원도심의 중심 ‘군산공설시장’

1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공설시장은 20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군산 원도심의 중심 상권이다.

무빙워크와 엘리베이터, 쉼터, 어린이놀이터, 그림책쉼터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전통시장 그 이상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층에서는 농·수·축산물과 한약재, 장류, 반찬류, 분식 코너가 생동감 있게 펼쳐지며, 2층에서는 레트로 감성의 의류와 혼수상품, 이·미용점포, 청년몰이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2층 청년몰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개성 있는 메뉴로 젊은 층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30여 평 규모의 최신식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세대를 아우

르는 활력을 더하고 있다.

□ 신선함으로 말하는 수산 특화시장 ‘군산신영시장’

수산물과 젓갈류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화시장인 신영시장은 신선함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내세우는 곳이다. 현대화된 비가림시설과 친환경 생선건조장을 갖추어 위생과 쇼핑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얼음 위에 올려진 신선한 제철 생선과 주문 즉시 이루어지는 상인들의 능숙한 손질, 감칠맛 나는 젓갈류가 방문객을 반긴다. 이곳에서 준비한 제철 수산물로 구이나 꽃게탕을 올리고 맛깔난 젓갈을 더하면 명절 밥상이 더욱 풍성하게 완성된다.

□ 추억의 도깨비시장에 편리함을 더한 ‘역전종합시장’

군산역 앞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던 역전종합시장은 새벽마다 열린 도깨비시장의 역사와 옛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이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면 고소한 떡 향기와 반찬가게 상인들의 따뜻한 정이 방문객을 맞이하며, 명절이 되면 제수용품 마련하려는 발걸음으로 북적인다.

아케이드와 쿨링포그 시설을 완비하여 계절과 날씨의 영향 없이 언제나 쾌적하게 장을 볼 수 있

으며, 부모님 세대의 추억을 오늘날의 편리함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정겨운 시장이다.

□ 장날이면 마을 전체가 축제로 변하는 오일장 ‘대야전통시장’

매월 1일과 6일에 열리는 대야전통시장은 장날이 되면 고요하던 골목이 인파로 가득 차며 살아있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좌판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나물, 생선이 활기차게 펼쳐지고 가마솥 장터국밥, 노릇한 빈대떡, 찜떡 등 다양한 정겨운 먹거리가 풍성하게 차려진다.

특히 줄을 서서 사 먹는 명물 파배기는 장터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별미이다. 초대형 공영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오일장의 흥겨움을 즐길 수 있다.

□ 우리 동네 가장 든든한 생활밀착형 장비구나 ‘군산주공시장’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주공시장은 주민들의 매일 식탁을 책임지는 가장 가까운 일상 속 시장이다.

싱싱한 채소와 즉석 반찬, 믿고 구매하는 정육 등 신선한 식재료가 알차게 갖춰져 있어 멀리 가지 않고도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다.

단골의 취향을 기억해 주는 상인들의 따뜻한 인심과 곁에서 다녀올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이 주공시장만의 차별화된 매력이다.

□ 시간을 걷는 골목, 근대 감성의 정취를 함께 만나는 ‘군산평산시장’

시간여행마를 골목에 위치한 평산시장은 소박한 골목 풍경 속에 군산의 시간과 정겨운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문화시장이다.

시장 곳곳에 남아 있는 근대 문화의 흔적과 체험 공간은 장보기에 소소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아케이드가 설치된 골목길을 따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둘러볼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 바다를 가장 빠르게 맛보는 수산물 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수조마다 활어가 가득한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특화 시장이다.

1층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수산물을 2층 식당에서 바로 맛볼 수 있어 제철 꽃게와 전어, 얼큰한 매운탕 등 바다의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최근 본관동과 건어동을 신축 준공하여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쇼핑 환경을 갖추었으며, 쾌적함과 전통 수산시장의 생동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 명절 장보기 부담 덜어주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군산시는 명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16일(수)부터 오는 20일(일)까지 5

일간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공설시장, 역전종합시장, 대야전통시장에서 열리며, 수산물 환급행사는 공설시장, 역전종합시장, 신영시장, 수산물종합센터, 군산주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이나 국내산 원물 70% 이상 가공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1인당 최대 한도인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지정된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주요 환급소는 대야전통시장 성광점미소 건물 1층, 군산주공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 군산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 등에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준비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이용이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1. 역전종합시장
2. 군산수산물종합센터
3. 주공시장
4. 대야전통시장
5. 공설시장 청년몰